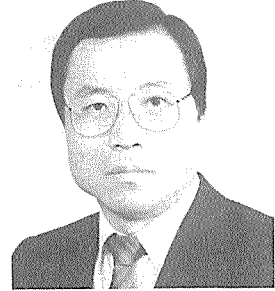




韓國 · 東아시아 經濟모델의 挫折과 再起



안 충 영
증 양 대 학 교
국 제 대 학 원 원 장

제가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멕시코를 방문한 바 있다. 멕시코 방문의 근본 목적은 멕시코가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비전 2020」을 설계하는데 있어 한국의 공업화와 발전 경험을 참고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작년 초에 멕시코 상공인들에게 한국이 60년대 초에 가발과 합판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가전, 생산국으로 발전한 모습을 30년만에 이룩했다는 내력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멕시코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접경하고 있는 나라인데 왜 아직도 저성장의 혼미속에 있는가하고 자조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국인이 이룩한 발전에 대하여 찬사를 보냈다.

8월에는 다시 멕시코 세디요 대통령이 참석하고 멕시코 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모임에 초청을 받아 한국의 발전 경험을 수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바 있었다.

그 뒤 10월 중순에 멕시코시티에서 한 멕시코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그 때도 한국 대

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멕시코인들의 질문내용은 지금 동남아는 태국에서 시작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치면서 통화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80년대 초 멕시코에서 촉발되었던 통화위기가 데킬라 이펙트를 발휘하면서 전 중남미에 파급되었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 따라서 현재 동남아에서 전개되는 통화위기가 한국에까지도 엄습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약 305억 달러 정도이고 작년도에 국제수지 적자가 236억 달러 정도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적어도 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 물가수준도 정부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5%안에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변수가 아주 좋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런 통화위기가 한국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올해는 외환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귀국하고 난 바로 3주일 뒤에 우리는 IMF에 국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경제인들에게 커다란 거짓말을 하고 돌아온 셈이 되었다.

1993년에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레포트를 제출했다. 옥스퍼드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에 하나의 복음서가 되었고 또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실체가 무엇이고, 왜 동아시아가 서남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30여년에 걸쳐 연평균 8%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분석을 했다.

세계은행(IBRD)은 IMF와 자매기관으로 출발을 했다. 워싱턴 DC 백악관 옆 두 블럭 뒤에 서로 마주보고 IMF와 세계은행이 자리잡고 있다. 세계은행에 10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자문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이 갖는 여러가지 상호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동아시아,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한국의 공업화 과정은 IBRD에 의하여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칭송을 받았고, 한국경제는 동아시아 기적의 대표주자로 부가되었었는데, 이제 한국은 IMF에 의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정크 본드 수준의 처참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극적인 추락이 아닌가 싶다.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보고서를 낼 때 동아시아에 있는 1세대 공업국가 즉 소위 말하는 네 마리의 용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 다음 2세대 신흥공업국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을 동아시아의 기적 속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일곱 나라에 앞서서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역사적인 선례를 이룩했다고 해서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기적 모델의 기본적인 특성은 모든 나라들이 수출주도형 대외경제 전략을 추진했다는 것과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아주 높은 국내 저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멕시코의 저축률은 아직도 18%~20%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국내 저축률이 30%~35%에 이르는 아주 높은 저축률을 가지고 있다. 또 라틴 아메리카에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높은 교육수준의 인간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을 이룩하면서도 분배구조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동남아의 국가들은 정부가 비교적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엄격한 실적위주에 따라 금융을 배분해 주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개입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했다. IBRD와 서구의 학자들은 이것을 ‘아시아 모델(Asia Model)’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일본 경제가 전후 미국의 수준을 따라 잡으면서 80년대에는 세계적 제조업 기지로 부상하게 되었을 때 하바드 대학의 Vogel교수는 ‘세계 일등국가로서의 일본(Japan As Number One)’이라고 칭송을 했고 또 하바드 대학의 Edwin Reischauer 역사학 교수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오야붕-요붕’의 가부장적인 인간관계가 일본의 저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집단주의의 힘을 발휘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칭송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관료들이 일본경제를 진두지휘하면서 일본경제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시켰다고 말을 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모델에 대해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서구의 언론들이 바로 작년 중순부터 제기된 동남아의 통화위기, 경제위기를 놓고 Crony Capitalism 즉 아시아적 자본주의, 또는 패거리적 자본주의, 연줄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알고 보니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금융의 세계화 현상 속에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명명하고 있다. 카지노에 가서 블랙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엄격한 룰에 의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서구의 언론은 언제든지 게임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카지노와 같이 이익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미국식의 유연한 자본주의 체제가 동아시아 경제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경제 전체를 미국의 카지노 자본주의로 개조시키고 변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 민족들이 대대로 숭상해 왔던 유교적 가치관 자체에 대해서도 서구언론들이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소위 유교권에서 얘기하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은 초월경적이고 초공간적이고 또 적어도 서구적 물질문화의 잣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철학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급속한 자본주의화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가 퇴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단절하고, 새로운 승화를 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전통적 아시아 문명사의 가치는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태국에서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태국의 경제지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을 했다. 그런데 태국의 경제가 8% 이상의 성장과정에서 한국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96년도 태국의 무역수지는 약166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그래서 GDP의 8%에 해당되는 적자폭이 생겼다. 우리나라의 경우 96년도에 236억 달

러였다. 그런데 태국은 지난 10년 동안 태국 바트화를 달러화에 연도시킨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그래서 그 환율추이를 보면 거의 달러당 25바트에서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태국의 그런 고정환율제 아래에서 당시 국제금리가 태국의 국내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다. 예를 들어 태국의 대출이자율 15%~19%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금리보다는 거의 10%나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물가는 5%내로 안정이 되어 있었다. 이런 체제 속에서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태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된 결과 민간부에서는 일단 국내금리가 해외금리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차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본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핫머니'를 포함한 외환이 급격하게 태국경제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태국의 외환 유입 증 대중을 이루는 것이 일본의 엔화 자금이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 엔화는 제할인율이 0.25%이다. 그래서 거의 1%를 약간 상회하는 대출금리를 가지고 있다. 또 막대한 무역흑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자금이 직접 투자의 형태로 혹은 주식, 증권투자의 형태로 동남아로 속속 진출하게 되었고 이른바 동남아 전체에 엔블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태국의 금융기관들은 고속 성장 속에서 계속해서 외환자금이 유입되고 경제는 계속 확장일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신용심사 없이 또 사업성에 대한 검토없이 방만한 대출을 하기 시작했고 부분적으로 상당한 대출금액들이 부동산 내지 경쟁력이 없는 부문에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다시말해 태국경제에 엄청난 버블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이 계속해서 유입되면 태국 바트화의 가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국제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

기 때문에 바트화는 당연히 평가절하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환이 유입되니까 바트화가 고평가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변동환율제하에서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환이 유입되기 때문에 원화의 평가절하가 과감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900원선을 넘는 소폭적인 절하현상 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세계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5%를 초과하게 되면 태국 경제도 위험수위인데 96년도에 8%를 넘는 무역수지 적자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태국의 바트화는 달러당 25바트로 계속 묶여 있었다. 이것은 막대한 외환의 유입 때문이었고 그 유입된 외환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바로 단기자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단기자본의 유입과 같은 현상이 태국에서도 일어났다. 여기서 단기자본의 생리상 그 나라의 기본 경제체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바트화가 언젠가는 평가절하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투자자들이 태국을 빠져나가고, 상환 연장을 해 주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태국경제가 국제수지에서 적자를 내게 되는 또다른 중요한 요인은 태국의 경제가 아직도 노동집약형 제품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대외지향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태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던 노동집약적 상품들을 중국이 크게 잠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태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출주도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국에 의하여 잠식당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가격경쟁력은 바트화가 달러화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제수지 적자폭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7월 2일 태국 정부는 처음으

로 바트화에 대해 20% 평가절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달러로 표시된 각종 국내 유가증권 자본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게 되었고 계속해서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면서 국제 단기 자본가들이 태국에서 속속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태국은 우리가 직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양상으로 국제자본은 빠져나가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나고 국제수지 적자폭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이렇게 견잡을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어떠한가? 소위 ASEAN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 협력기구를 통해서 한 나라의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상호무역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자본의 유출입이 아세안 각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태국경제의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도 자본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외국 자본들이 속속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많은 직접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경제 또한 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당국의 환율정책, 또 단기자본을 차입한 똑같은 실수를 범하기 시작했다. 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는 수하르토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권좌에 있으면서 그 친인척들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사업들을 전부 관장하고 있으면서 부패정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금융기관들이 정실 자본주의, 연줄 자본주의 체계로 나가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사업성에 입각한 대출이 아니고 정치적 외압에 따르는 대출관행을 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태국에서 일어났던 경제적 과장이 즉각 인도네시아로 옮겨가게 되고 인도네시아에 들

어났던 외국 단기 자본들이 속속 철수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가 폭락을 하게 되고 그 여파는 화교자본가들의 탈출로 시작해서 홍콩으로 건너오기 시작했다.

태국에서 7월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치밀한 준비와 분석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의 카지노 테이블과 같은 민감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는 한국에 들어온 단기자본들이 상황연장을 잘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다. 국제수지 적자가 96년도에 236달러가 나기 시작했고 GDP의 6%수준에 육박하여 IMF가 경고하는 적색경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금사들이 국내금리와 국제금리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모한 단기자본 차입을 강행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재정경제원이 독려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중금사들이 외국에서 차입한 단기자본들을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전염되어 있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곳에 직접투자를 감행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국제 단기자본의 생리라는 것이 경제 기초여건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즉각 철수한다는 현상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이다.

일종의 stampede 현상으로, 예를 들어 아프리카 초원에서 얼룩말의 무리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얼룩말들이 무리지어 있다가 그 중 한 마리가 위험감지를 하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무리군이 영문도 모른 채 동시에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국제단기자본의 생리라는 것은 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거나 경제 기초여건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한 자본가가 철수를 하기 시작하면 마치 얼룩말의 무리군이 질주하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속속

이탈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994년에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건실한 경제여건을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과다한 단기자본을 차입했을 때에 이와같은 현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사태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태국에서 일어난 사태가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까지 전개가 되었다.

IMF는 한국에 대해 미국자본의 논리를 옹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지금 구라과 공동시장에서는 구라과의 단일통화가 곧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탈냉전 이후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써, 아시아권에서 경제적인 패권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자본 자유화라는 세계적인 물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강국, 혹은 세계적 헤게모니 파워베이스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국제 금융자본주의의 논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는 불모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철강, 조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연간 생산 450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세계 선진 자본주의국가가 성역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시장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포드를 물리치고 국민차 생산의 합작회사로 기아가 선정되고 동구권에서도 대우가 많은 자동차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또 구라과 본토에까지 본격 상륙을 하고 있다. 나아가 브라질에까지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남미 시장까지 위협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주로 재벌들이 하고 있는데 재벌들의 경영 관행이라는 것이 상호 지급보증, 상호출자 또 금융기관과 정경유착이 된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자동차 생산물량에 한국 자동차의 생산 '케파'가 상당한 교란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은 자동차 생산가격의 안정이나 기존 자동차 생산국이 누리고 있는 비교우위를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한국식의 경쟁관행에 대해 투명성이라는 논리로 견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두달 반전에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하여 미국의 USTR이 WTO체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슈퍼 301조를 발동하여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목을 했다. 미국이 WTO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만들었다. 다자간 통상분쟁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슈퍼 301조를 그대로 선언을 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중화학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자동차산업과 같은 전통적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성역을 한국이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세계 어느 국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경쟁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세계화, 금융 자본의 세계적 논리의 힘으로서 미국과 서구는 한국의 성장세를 견제하려는 액션을 취하려는 것이다. IMF의 최대 출자국이 미국이다. 미국이 한국의 국내시장 개방에 대해 집요하게 요청을 해 왔으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피동적으로 국내시장보호형으로

고수해 왔다. 그러니 미국의 루빈 재무장관 같은 사람은 한국의 국내시장 보호를 기필코 격파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의 글로벌화라는 현상이 이처럼 이익과 자본의 논리 속에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이한 자세로 자본 자유화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이 이것에 휩싸이면서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틀을 다졌다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날 우리문제점의 근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러면 오늘날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카지노 자본주의의 힘에 의하여 이제는 세계의 금융시장이 초스피드화가 되고 초국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운용의 원리, 모든 주요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의 상황에 대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국내 시장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국제적인 관행과 국제적인 투명성을 벗어나면서까지도 자국이익보호 일변도의 정책은 더 이상 용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외자를 차입했기 때문에 국제적 금융이 흘러가는 생리와 논리대로 우리 경제구조의 틀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 자본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채무연장을 해 주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하루아침에 외환위기와,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안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국제 단기자본시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폐쇄경제로 갈 수도 없다. 이것은 북한과 같은 경제운용방식을 취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멸의 길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와 동아시아 경제는 대외지향경제,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다. 자본자유화가

진행되고 국내외 금리차가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 해외자본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10월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305억 달러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IMF기준으로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용외환은 100억 달러 미만이었다. 그 나머지 돈들은 국내 은행들이 해외지점에 예치를 하거나 혹은 바깥에서 유가증권을 사거나 해서 계정상으로는 우리의 외환보유고로 잡혀 있었지만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외환의 규모는 100달러도 채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실령 당시에 300억 달러 정도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외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제 단기자본가들이 일시에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남아 사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국제 단기자본의 차입과 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계은행의 협상단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우리 정부는 305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사를 해보니 100억 달러도 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기 차입금이 천백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달에 백억 달러씩 갚아야 하는 빚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경원이나 한국은행은 이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당장 갚아야 할 빚후수가 눈앞에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태국 사태가 7월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외환사정과 올해 국제수지, 그리고 국제 단기자본들의 생리를 더 철저히 이해했다더라면 IMF에 구제금융을 미리 요청을 하든지, 특단

의 경제조치를 취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황전개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놓치고 벼랑 끝에서 IMF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IMF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개혁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기업회계의 투명성이라는 문제는 벌써 5년 전부터 미국의 비즈니스위크,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전문잡지들이 한국의 재벌구조가 상호지급, 상호출자, 정경유착을 통해 거의 과점적으로 은행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돈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하며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고 나아가 한국의 대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과 소수 특화를 하면서 기술 심화를 하는 것과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한국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 경제운용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해 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선진국 업체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공정한 대출관행과 공정한 회계 기준 속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정당당당하게 겨룬다면 시비를 삼지 않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경영구조를 살펴보니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등으로 운용되고 있고 또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의 회계가 전혀 믿을 수 없는 형태로 운용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을 믿을 수 없다는 소문이 이미 팽배해 있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진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평소 인식의 토대 위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경영관행, 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

한국인에 대해 비합리적인 오만과 거만이 팽배하다고 비난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자만과 과소비 풍조를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이 대외지향 경제체제가 외국 자본의 힘을 빌어 경제운용을 하려고 하면 카지노 자본주의, 다시말해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희망이 없으면 썰물처럼 철수하는 냉엄한 국제 금융 자본주의의 논리와 성향에 우리 스스로를 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21세기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모든 경제 운영은 투명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IMF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멕시코에 IMF가 구제금융을 줄 때는 멕시코의 상황이 우리와는 상당히 판이하게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지는 처방은 지금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지금 IMF가 제시하는 초긴축재정, 긴축통화관리라는 확실적인 잣대를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적용한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출을 할 수 있고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자금이 돌지 않음으로 해서 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가 원래는 총유동성 증가율을 9%라고 했지만 나중에 조정해서 15%까지 올라가도록 했다. 이것은 물가수준을 원래 5% 안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9%까지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물가상승율을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총유동성 증가율이 늘어난 것은 결국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쇄가 되어버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에는 자금공급에 전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

다.

얼마전 강드쉬 총재가 회견을 통하여 IMF가 제시한 조건들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진행되어가는 변화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신축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국제수지에서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빨리 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역시 기초가 튼튼한 경제이며 제조업 기지창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외신임도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수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우량수출업체들에 대해 돈을 제대로 융통해 줄 수 있는 금융의 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두개의 중금사를 폐쇄하기로 해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몇 개가 다시 되살아난다고 한다. 태국의 경우 두개만 남겨놓고 56개를 항구적으로 폐쇄를 했다.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갈피를 못잡아 국제적인 신뢰를 갖게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금사와 은행의 문제에 대해 정리 방침을 빨리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좋은 정상적인 은행들이 국제적인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수출에 관련되는 'Nego'나 수입 신용장의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통화공급을 지금보다는 최소한 20% 정도까지는 확대할 수 있는 협상을 하기 위하여 노동부면에서 정리해고제를 관철시키는 등 모든 IMF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한 재협상을 하여 관철시켜

야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맺고자 한다. 아시아적 가치,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 아시아의 어느 정부나 어느 학자도 우월성을 주장한 적이 없다. 전부 서구언론들이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부추겼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단기외환관리의 미비를 계기로 정크본드 수준으로 매도를 해 버렸다. 물론 계약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무시할 수 없다. 후쿠야마는 “신뢰가 충만한 사회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다. 그런데 동양사회는 약속을 위반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심리성향이 있어 여기서는 자본주의 문화가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구사회에서는 약속이라는 것은 모두 법조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반면에 우리 동양사회는 오랫동안 농경사회 문화가 정착되어 오면서 굳이 법조문을 들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온정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하기 때문에 서구사회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아시아 사회가 신뢰의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신뢰의 기반을 빨리 회복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 다음으로 멕시코와 한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멕시코는 살리나스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세디요 대통령이 개혁조치를 하면서 노동계, 정부, 기업, 농민, 소비자 대표 등 다섯계층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부 한결음씩 양보를 하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국민대협약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미국에 약속했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철저히 진행시켰다.

멕시코의 경우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

경제가 잘못되면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나들면서 엄청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 그래서 멕시코 사태가 벌어졌을 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재정 자금을 동원해서 멕시코를 구출했고, 그 다음에 IMF의 구제자금이 들어 오게 되었다. 멕시코 경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금융대국이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한다는 논리로 적극 나섰기 때문에 1년 반만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금년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8%를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 경제는 은행, 보험, 증권회사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했고 국영기업들은 대대적으로 민영화를 했으며 환율정책을 유동화시켜 철저한 긴축 정책을 폈다.

그래서 우리도 총유동성 증가율만 지금보다 5% 정도 올리면서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멕시코가 극복했던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멕시코는 우리처럼 두꺼운 중산층이 없다. 80% 이상의 국민들은 근검절약이라는 개념이 없고 문맹률도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는 중산층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민적 의지가 매우 높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식, 충효의 사상, 정직 같은 동양적 가치이다. 선비정신, 논어의 ‘學而時習之...’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데 즐거움이 있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배움에 대한 갈망 등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동양적인 사고에 국제금융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투명성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배가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재개할 수 있고 아시아 기적, 경제선진화를 이룩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